

## 고학력 외국인 여성의 학업 이주 경험에 관한 해석현상학적 연구: 선택과 교차성의 맥락에서

신 수 정

김 상 숙<sup>†</sup>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초빙교수

본 연구는 한국에 온 고학력 외국인 여성의 학업 이주 경험을 해석현상학적 분석(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IPA)을 통해 심층적으로 탐색함으로써 학업을 목적으로 한 이주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케냐, 가나, 필리핀, 중국 출신의 고학력 외국인 여성 6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고, IPA 절차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여 경험의 공통된 주제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5개의 상위주제와 15개의 하위주제가 확인되었다. 상위주제는 ‘성취와 선택으로서의 이동’, ‘학업을 통한 자기 확장과 재구성’, ‘외부자의 시선으로 본 한국 사회’, ‘맥락 속에서의 선택적 정주’, ‘교차적 위치성과 차별의 경험’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고학력 외국인 여성의 학업 이주를 적응과 취약성 중심의 담론을 넘어, 선택과 교차성의 맥락에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는 외국인 여성을 단일한 취약 집단이 아니라 다양성과 복합적 위치성을 지닌 능동적 주체로 이해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학업 이주를 선택한 고학력 외국인 여성의 경험을 문화, 젠더, 정체성이 교차하는 복합적 경험으로 조명함으로써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외국인 유학생 이주 환경에 대한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어 : 고학력 외국인 여성, 학업 이주, 해석현상학적 분석(IPA), 교차성, 주체성

<sup>†</sup> 교신저자: 김상숙,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초빙교수,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E-mail: sangsuk\_kim@ewha.ac.kr



Copyright © 2026, The Korean Society for Woman Psycholog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최근 한국 사회는 다문화 양상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관찰되며, 국제 이동의 증가와 함께 인구 구성의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수는 308,838명으로, 이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는 수치이며 이 중 상당수가 유학비자(D-2 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보고된다(법무부, 2025). 오늘날 외국인 유학생은 단기 체류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교육 제도 안에서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김윤희, 2025). 이러한 양적 확대는 한류 문화의 확산,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대학의 유학생 유치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이선미, 김영순, 2021). 이들은 더 이상 교육 영역에 한정된 대상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정주하거나 노동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을 지닌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조숙정, 오정은, 2022) 이에 따라 이들의 경험을 다층적으로 탐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외국인 여성 이주를 다룬 연구는 오랫동안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관련 연구들은 주로 문화 적응, 인권 보호, 양육 부담, 가족 및 관계갈등, 사회적 차별, 정책 지원 등을 주요 주제로 다루었고, 사회적 지원이나 제도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입장에서 외국인 여성 집단을 이해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김상찬, 김유정, 2011; 송미경 외, 2008; 신혜정 외, 2015; 윤인진, 2008; 최운선, 2007). 이러한 연구들은 다문화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지만, 동시에 외국인 여성의 이주 경험을 구조적 취약성과 적응의 문제로 환원하는 경향도 내포하고 있다(원종숙, 김성길, 2020). 결과적

으로 외국인 여성의 이주 경험은 종종 선택이나 전략의 과정이라기보다 생존과 적응의 문제로 재현되어 왔다(원종숙, 김성길, 2020).

외국인 유학생 연구의 초기에는 적응과 문화적 어려움에 초점을 둔 경향이 두드러졌다. 질적연구 동향 분석에 따르면, 유학생 연구의 주요 주제는 ‘적응’, ‘문화’, ‘경험’, ‘한국어’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학생을 새로운 사회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존재로 위치 짓는 분석 틀을 반영한다(이선미, 김영순, 2021). 이후 연구는 점차 확장되어, 박사과정 여성 유학생의 다중역할 경험(안기, 제혜금, 소혜진, 2021), 졸업 이후 취업과 정주 전략(최희정, 2022), 초국가적 이동성과 정주 협상(구기연, 2024) 등을 탐색하는 연구가 등장하였다. 한편, 최근에는 몽골, 베트남 국적 고학력 외국인 이주여성의 상호문화적 실천과 주체성을 조명하는 현상학적 연구(김진희, 2025; 윤효승, 2025)를 통해 유학생을 능동적 의미 구성 주체로 조명하면서 기존의 적응 중심 담론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여전히 아쉬운 점이 발견된다. 첫째, 연구 대상의 측면에서 특정 국적이거나 전공 집단에 초점을 둔 연구(조숙정, 오정은, 2025)들이 많아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지닌 고학력 학업 이주여성의 경험을 통합적으로 탐색하지 못하였고, 그 경험의 다층성과 맥락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 둘째, 외국인 이주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 문제를 주로 다루었기에(윤효승, 2025), 개인의 선택이나 정체성의 재구성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이들의 이동 경험을 충분히 해석하지 못했다. 또한 여성 외국인의 학업 이주 과정을 성공적 적응 혹은 실패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접근하였기에(조효진, 김민정, 2024), 학업 이주를 통해 형

성되는 주체성, 전문성의 확장, 삶의 방향 재 설정과 같은 존재론적 차원의 접근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다. 셋째, 학업 과정, 졸업 이후 삶, 한국 사회 정주 여부에 대해 과정적이며 통합적으로 조망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따라 주체적으로 학업 이주를 선택한 이들의 경험을 학업 이전의 기대, 학업 이주 과정에서의 실제 경험, 졸업 후 진로 선택과 한국 체류에 관한 결정이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과정으로 보는 통합적 탐색이 요구된다.

고학력 외국인 학업이주 여성들은 기존 연구 대상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지닌다. 학업과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국가 간 이동을 선택하였기에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지니고 있다. 이주는 생존 전략이기보다 교육 기회의 확대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선택이기에, 기존의 취약성 중심 분석만으로는 충분하게 설명되기 어렵다. 최근 연구들은 고학력 이주여성의 상호문화 실천, 초국가적 이동성, 성공 경험, 졸업 이후 삶의 전략 등을 탐색하면서 기존 적응 중심 담론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지만(조숙정, 오정은, 2022; 민숙원, 심은비, 2021), 이러한 연구들 역시 특정 국적이거나 전공 집단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한계를 보인다. 또한 다양한 국적의 고학력 외국인 여성이 학업을 위해 한국 사회로 이주한 경험을 어떻게 의미화하는지에 관한 통합적 고찰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들이 삶의 변화를 어떻게 정체성 전환의 사건으로 의미 부여하는지, 이들이 조망한 한국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한 심층적 탐색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차성(intersectionality) 이론은 본 연구에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할 수 있다. 교차성 이론은 젠더, 국적, 계급, 이주

지위, 모성 등 다양한 사회적 위치가 상호 교차하면서 개인의 경험을 구성한다고 본다(Crenshaw, 1989, 1991; Collins, 2000). 이 관점은 개인과 사회적, 정치적 삶의 사건과 조건들은 많은 요인들에 의해 상호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교차성 개념은 개인의 경험을 둘러싼 사회적, 정치적 맥락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인간 경험의 복잡성을 분석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이 된다(Collins & Bilge, 2016). 최근 교차성 개념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며, 때로는 개념 적용에 있어 이질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 경험의 복잡성, 사회적 정체성과 경험의 다층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교차성의 관점에서는 외국인 여성 유학생을 단일한 범주로 환원하지 않고, 복수의 정체성이 맥락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는 존재로 이해한다. 또한 일상적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차별(microaggression)은 명시적 배제 없이도 권력 관계가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준다(Sue et al., 2007). 정체성의 교차성 개념이 갖는 함의는 한 개인을 충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정체성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다양한 정체성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관점이 필요함을 뜻한다(김연수 외, 2025). 이러한 관점은 고학력 외국인 여성 유학생의 경험을 단순한 사회 적응의 차원이 아닌, 교차적 위치성 속에서 형성되는 의미 구성 과정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따라서 고학력 학업이주 여성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적응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자신의 이동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화하는지 탐색하는 접근

이 필요하다. 해석현상학적 분석(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IPA)은 개인이 경험을 이해하고 서사화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질적연구 방법으로, 경험의 의미 구조와 정체성 형성 과정을 탐색하는 데 적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이광석, 2013). 이러한 방법론적 접근은 고학력 외국인 여성의 학업 이주 경험을 주관적 의미 체계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한 고학력 외국인 여성의 학업 이주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그들이 자신의 이동과 삶을 어떻게 의미화하는지를 해석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고학력 학업 이주여성의 경험을 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분석 틀을 확장하는 동시에, 외국인 여성 집단을 단일한 취약한 집단으로 규정해 온 기존의 시각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고학력 외국인 여성의 학업 이주 경험을 개인의 주체적 선택과 복합적 사회적 위치가 교차하는 맥락에서 분석함으로써 외국인 여성 유학생에 관한 기존 연구의 관점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 양상의 변화가 두드러지는 현시점에서 자발적이고 전략적으로 학업 이주를 선택한 외국인 고학력 여성의 경험을 문화, 젠더, 정체성 등이 결합된 복합적 경험으로 재규명하고 정체성 재구성과정의 관점에서 조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더욱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외국인 유학생 이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재한 고학력 외국인 여성은 자신의 학업 이주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의미화하는가?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의 다문화 양상의 변화에 주목하여, 자발적이고 전략적으로 학업 이주를 선택한 외국인 고학력 여성의 학업 이주 경험에 초점을 두었다. 표집은 연구참여자의 경험 특수성을 전제로 하며, 학업 이주 경험을 기준으로 의도적 표집을 수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석사 이상 학위 과정을 목적으로 한국에 와 국내 대학 학위를 마쳤거나 학위 과정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동질적인 성격의 연구참여자들을 통해 풍부하고 상세한 개인적 경험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적, 학위과정, 민족적 배경이 서로 다른 고학력 학업 이주여성 6인을 대상으로 하여 사례 내 심층 분석과 사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국에서의 경험 인식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으로서 국적과 결혼 유무 등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자를 표집하였다. 첫 면담은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로, 이후 눈덩이 표집 방식(snowball sampling)으로 연구대상자를 찾아 나갔다. 동시에 국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대상을 찾고자 코이카(KOICA)의 해외 공무원 지원 석사학위과정으로 한국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 이들을 추천받았다. 이 경우 연구 대상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단기 연수가 아닌 석사학위과정을 취득하기 위한 학업이 일차적인 목적이라는 점, 이미 타 국가에서나 본국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고학력 여성이라는 점, 한국에서의 학업 경험이 이후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결과적으로 중국(조선족) 출신 박사수

표 1. 연구참여자들의 기본정보

연구참여자	연령	국적	학력	혼인상태
1	40대	중국	박사수료	결혼(자녀 3명)
2	30대	중국	박사수료	비혼
3	20대	필리핀	석사과정	비혼
4	30대	케냐	석사과정	비혼
5	20대	가나	석사과정	비혼
6	40대	중국	박사	결혼(자녀 3명)

료생, 필리핀·케냐·가나 출신 석사과정생, 중국(한족) 박사 등 총 6명의 고학력 학업 이주여성과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은 반구조화 인터뷰 방식으로 수행하였으며, 연구참여자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질문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추적 질문을 이어갔다. 면담 전에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서면 동의 이후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기본정보는 표 1과 같다.

### 연구절차

자료수집을 위한 면담은 2025년 10월 말부터 2월 첫 주까지 1:1 심층 면담으로 진행되었다. 대면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한 건은 비대면 면담으로 zoom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담 시간은 평균 60분에서 120분이었다. 사전에 연구의 기본 취지와 주요 질문 내용에 대한 연구설명서와 동의서를 발송하였다. 실제 면담을 시작하면서 연구 주제와 목적을 설명하였고 추후에라도 연구 철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개인정보의 범위와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모든 면담을 사전 동의를 구한 뒤 녹음하고 이를 텍스트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

쳤다. 6명의 연구대상자 중 3인의 면담은 영어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참여자의 서술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하여 영어 녹취를 번역하고 번역본을 분석 자료로 삼았다.

심층 면담을 위한 질문은 반구조화된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질문은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한국에서의 학업 수행 경험은 어떠했나요?”, “학교나 일상에서의 경험은 어떠한가요?”,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유학 전 기대했던 점과 실제 경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한국에서의 경험에 만족하시나요?”, “졸업 이후 진로 계획은 무엇인가요?”, “진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등으로 경험의 흐름에 따라 구성하였다. 연구자들은 면담이 마무리될 때마다 당시의 상황이나 분위기에 대한 느낌을 공유하고 연구메모를 작성하였다. 인터뷰가 마무리될 때마다 녹취록을 작성하였으며 면담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였다. 이어지는 코딩 과정에서는 먼저 각자 원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주요 개념들을 발견하고, 이를 취합하여 함께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해를 확인하고, 의미를 심도 깊게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분석을 정교화하였다.

## 연구방법

### 해석현상학

후설(Husserl)의 현상학적 전통에서 출발하여 하이데거(Heidegger)의 존재론적 해석학과 가다머(Gadamer)의 철학적 해석학 등에 영향을 받아 Smith et al.(2009)이 정립한 해석현상학은 개인이 특정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의미를 구성하는가에 주목한다(Smith, Flowers, & Larkin, 2025). 해석현상학은 개인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경험에 초점을 두며 그 의미와 내적 구조를 깊이 있게 기술하며,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거나 의미를 부여하는지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고 이를 연구참여자와 연구자가 공유하는 이중 해석 활동이라 할 수 있다(Smith et al., 2025).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여 이야기하고, 연구자는 그 해석을 다시 해석한다는 점에서 단순 기술이 아니라, 경험 세계의 의미 구조에 접근하는 철학적이고 방법론적인 작업이다. 연구는 한 가지 방법론이 아닌 유연성의 특징을 보여주며, 전형적으로 반복적이고 귀납적인 순환으로 설명된다. 대체로 읽기의 반복, 초기 기록, 종합적인 탐색 논평 등을 거치면서 생성된 주제의 전개 및 주제 간의 관련성 탐색, 사례 간의 패턴 발견과 고찰 등을 진행한다(Smith et al., 2025).

본 연구는 고학력 외국인 여성이 한국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는가에 관심을 갖고 연구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방법론으로 해석현상학적 분석을 적용하였다. 해석현상학적 연구는 소수의 개인의 삶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 또한 현상의 드러남 원인이나 전개 과정을 분석하기보다는, 그 현상의 중심에 놓인 체험자들이 느

끼는 의미의 본질에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연구대상자들이 한국에 와서 학위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였는 가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한국 유학을 택한 고학력 여성으로, 이들의 학업과 생활 경험에는 스스로 부여한 의미와 자율성이 중심축을 이룬다. 경제적 여건이나 환경 등 상황적 요인보다도 자발적으로 지적 욕구나 직업적 성취를 위한 목적으로 일시적인 한국행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관적인 경험 뒤에 숨겨진 의미를 찾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즉 현상의 인과관계나 일반법칙의 발견이 아니라 연구참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체험 속에서 형성된 의미세계에 대해 연구자의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한 지점이다. 본 연구가 묻고자 하는 고학력 학업 이주여성의 학업 및 일상 경험은 해석현상학적 연구가 특정 현상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자신의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를 탐색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라는 규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해석현상학적 연구는 참여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사례 중심 접근으로, 각 사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위해 소규모 표본(3-5명)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Smith et al., 2025). 본 연구는 개별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도 사례 간 공통점과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하여 6명으로 설정하였다. 연령, 국적, 학력, 혼인 상태 등 다양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 참여자를 포함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다양성을 통해 교차적이고 다층적인 경험을 확인할 수 있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차별 인식이나 주체성, 정주 과정에의 장벽과 같이 인간의 복잡한 심리를 다루고 있어 상반된 정

서와 판단이 얽힌 경험 세계를 분석할 수도 있다. 연구자들의 경험을 단순히 적용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탐색하며, 학업 이주여성을 단일 프레임 속에 두지 않는 열린 분석 방법을 시도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의미화를 연구자가 다시 의미화하는 2중 해석 구조 위에서, 학업 이주 결정과 생활세계의 변형을 주관적 경험 중심으로 해석하는 연구로 설계될 수 있다.

### 자료분석

본 연구는 해석현상학적 방법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절차를 기본 틀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조명옥, 양진향, 2023). 첫 번째 단계는 원문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내용을 숙지하고 연구참여자의 세계에 진입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 단계는 초기 코딩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는 기술에서 관심이 가는 모든 것을 기록하면서 발언에서 의미 단위를 찾는 작업 수행 단계이다. 단어, 구, 문장, 단락 등에 대한 연구자의 의미는 무엇이고 연구참여자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질문한다. 연구자에게 중요한 관심사와 연구참여자가 이 핵심 관심사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왜 관심을 두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탐색적 논평을 개발한다. 세 번째는 주제를 발견하는 단계로 면담 내용을 중심에 두고 포괄적인 설명적 언급을 통해 자료들의 실제적 상을 점차 명확하게 드러내는 과정이다. 네 번째 단계는 원자료에서 도출한 일련의 주제를 확보하고, 연계성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개별 주제들 간의 유사성을 파악하여 비슷한 의미의 그룹으로 군집화하면서 상위주제를 구성하는 단계이다. 다섯 번째는 한 연구참여자에 대한 분석을 네 번째 단계까지 진행한 후 동일 순서와 방법으로 다음

연구참여자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단계는 분석한 사례 간의 공통적인 패턴을 탐색하기 위한 단계이다. 사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반복되는 의미를 식별하고 사례 간 공통성과 차이를 비교해 나가면서 교차적 맥락 속의 의미를 파악하고, 전체 상위주제를 생성함으로써 보다 일반화된 해석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서술한 단계별 절차를 통해 연구참여자의 심층적 경험 이해와 그에 대한 연구자 해석의 조화를 추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원자료에서 상위주제에 이르기까지의 해석 과정을 반복적으로 검토하였다. 심층 면담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의미 있는 진술을 중심으로 초기 코드를 생성하였고 유사한 의미를 지닌 코드들을 묶어 하위주제를 도출하였다. 이후 하위주제 간의 개념적 유사성과 차이를 비교하면서 상위주제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예를 들면, 장학생 선발 과정이나 경쟁적 선발 경험을 강조한 진술은 ‘경쟁과 선발 경험’, ‘성취로서의 이동’과 같은 개념으로 정리하였고, 이러한 개념들은 ‘경쟁과 선발을 통한 이동의 성취’라는 하위주제로 통합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별 사례 분석 이후 사례 간 비교를 통해 반복적으로 주제를 수정, 정교화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상위주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학적 글쓰기를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현상 체험을 생동감 있게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그들의 경험이 지닌 본질적 의미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

연구의 엄밀성을 위하여 연구 과정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본 연구에 사용된 이론이나 연구방법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들에 대해 깊이 있게 고찰하였다. 질적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Lincoln & Guba(1985)가 제시한 엄밀성 평가기준에 따라 사실적 가치(Credibility), 적용성(Transferability), 일관성(Dependability), 중립성(Confirmability)을 준거 기준으로 삼았다. 사실적 가치(Credibility)는 연구 결과가 연구 참여자의 실제 경험과 의미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는가 하는, 신빙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는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고자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을 가능한 한 왜곡 없이 수집하였다. 특히 영어로 진행된 3건의 면담은 영어로 전사한 원고를 학술 전문 번역 사이트를 통해 1차로 번역하고, 전체적인 해석에 대해 동료 연구자 간의 검토와 합의를 거쳤다. 무엇보다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하였으나 대상자들이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호한 답변에 대해서는 한국어로 의미를 재차 확인하였다. 적용성(Transferability)은 연구 결과가 다른 상황이나 맥락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서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 과정에서 깊이 있고 풍부한 진술을 위하여 연구참여자와의 라포 형성을 통해 편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진정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Liebaw, 1993). 중립성(Confirmability)은 연구자의 편견이나 선입견이 아닌 자료에 기반한 분석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다. 연구자들은 질적연구 분야의 논문을 다수 게재한 경험이 있으며, 특히 젠더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으로 여성의 일과 경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또한 연구자들도 외국회사에서 고학력 아시아 여성으로 일했던 경험, 일의

영역에서는 권한을 지닌 관리자이나 사적 영역에서는 가정 내 돌봄 제공자 역할을 했던 경험 등 삶 속에서 여러 교차성 경험을 갖고 있었다. 연구자들은 개인은 누구나 교차적 위치에 처할 수 있음에 대한 경험적 이해를 지님과 동시에 연구 주제에 대해 기존에 형성하고 있는 이해가 분석 과정에서 편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자기 성찰을 거침으로써 개인적인 관점이 자료 수집과 해석에 개입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연구의 중립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동료 연구자간 일차적인 분석 결과를 비교 검토하면서 논의하면서 상호주관적 합의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진술에서 의미 단위를 도출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비교·검토하면서 하위주제와 상위주제로 발전시켰다. 또한 도출된 주제 간 연결성을 확인하면서 해석의 타당성을 점검하였다. 이후에도 현상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에게 분석 과정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주제 구성의 타당성, 의미 해석의 적합성, 해석 과정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다.

## 결 과

### 성취와 선택으로서의 이동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으로의 학업 이주 사건을 단순한 공간 이동이나 교육 기회의 획득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삶의 궤도를 스스로 재설정한 전환의 사건으로 의미를 부여하였다. 자신을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단순한 위치로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삶의 방향을 주체적

표 2. 도출된 상위주제와 하위주제

상위주제	하위주제
1. 성취와 선택으로서의 이동	경쟁과 선발을 통한 이동의 성취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
	고국 밖에서의 삶에 대한 호기심
2. 학업을 통한 자기 확장과 재구성	전문성 확장의 전략
	젠더 관점 이슈에 대한 관심
	학업에 대한 도전과 성장
3. 외부자의 시선으로 본 한국 사회	안전한 환경과 새로운 경험
	경계인의 우호적 시선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알아차림
4. 맥락 속에서의 선택적 정주	유연한 정주 고려
	학문의 독립성을 위한 선택
	목표에 따른 선택
5. 교차적 위치성과 차별의 경험	외국인 엄마로서의 경험
	외국인 학생으로서의 능력 증명
	소수자로서의 이중적 경험

으로 재설정된 사람이며 치열한 경쟁과 선발을 통과한 전문가로 서사화했다. 또한, 자신의 이주 경험을 한국 사회라는 새로운 맥락 속에서 자국에서 이미 확보했던 성취를 증폭시키거나 재배치하는 행위로 해석하였다. 특히 몇몇 참여자들은 한국 이주 경험을 개인의 능력을 증명하는 사건으로 묘사하였다. 엄격한 선발 과정과 자국에서의 훌륭한 이력을 강조하였고, 한국으로의 유학을 ‘획득한 성취’로 표현하였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취약한 자신의 위치를 상쇄하고 ‘선발된 자’라는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방식이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국에서의 안정된 경로에서 벗어나 한국으로의 학업 이주를 선택한 참여자들도

있었다. 대기업 취업이나 공공기관 근무 등을 뒤로하고 새로운 나라에서 학업을 선택한 행동은, 학업 이주가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전환의 사건이었음을 드러낸다. 이들은 학업 이주를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한 탐색적 전환이며 삶의 비전을 세우기 위한 의미 있는 사건으로 해석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한 호기심과 모험의 정서도 드러났다. ‘다른 곳에서 살고 싶었고 모든 것을 도전으로 본다’, ‘다른 나라라는 점에 흥분했다’는 표현을 통해, 학업 이주 사건은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을 확장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와 연결됨을 가늠할 수 있다. 나아가 이들이 ‘성취와 선택으로서의 이동’을 단순한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성취, 전환, 자기 확장 등

의 복잡한 의미 구조 안에서 체험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 경쟁과 선발을 통한 이동의 성취

코이카 장학금 프로그램에 두 번째 지원해서 뽑혔어요. 필리핀 대표로 왔는데 200명 중 6명만 뽑는 과정을 거쳤는데 정말 힘든 과정이었어요! 우리나라 고등교육 행정위원회에서 먼저 내부 심사를 했고, 그 다음에 고등교육위원회로 보내졌고.. 나중에는 패널 면접을 봤고요. (연구참여자 3)

이건 제 두 번째 석사 학위입니다. 처음에는 지방정부에서 성별 문제 조정 업무를 했어요. 성별 문제와 관련된 파트너들을 조정하고 여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문제도 조정하고 있었죠. 5년 후 중앙정부에서는 성별 문제에 관한 다른 국가들과의 양자 협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참여자 4)

석사 때 전액 국비지원으로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왔었습니다. 석사 졸업 후 (본국의) 박사 과정을 지원했는데, 성적은 1등이었으나 내정자가 있어 되지 않았습니다. 교수는 다음 해에 들어오라고 했지만, 마음이 상해 한국에서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한국의) 박사 과정에 입학했습니다. 당시 00대는 한중일 지역학 연구가 활발하던 시기였고, 한국어, 중국어, 영어 강의를 다양하고 배움과 보람을 느끼던 시기였습니다. (연구참여자 6)

###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

가족이 먼저 왔고 저는 중국에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왔어요... 중국 대학이 그렇게 좋은 대학이 아니기도 하고. 학력으로 좀 더 발전하기를 원하고 해서.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연구참여자 2)

공학 전공해서 대기업 취직을 했지만 좋아하는 일도 아니었고 이게 도무지 내가 원하는 인생의 삶이 아니다. 계속 그렇게 사는 게 싫어서...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생각하면서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면 유학을 가자. 처음부터 다시 가자 해서 1학년부터 다시 했어요. (연구참여자 1)

### 고국 밖에서의 삶에 대한 호기심

저는 아프리카 밖에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실 다른 나라라는 점에 흥분했어요. 다른 것들을 배우고,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다른 방식의 일 처리법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더 넓은 시각에서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연구참여자 4)

다른 곳에서도 살아보고 싶었고. 아시아 다른 지역도 보고 싶었어요. 중국도 가봤고 영국도 가봤으니까요. 환경을 바꿔보고 싶었는데 한국이 아주 좋은 선택이었어요. 학교에서 공공 행정에 어느 정도 중점을 두는 점도 있고, 한국 드라마도 좋아하거든요. (중략) 이건 제 인생에서 또 다른 도전 같은 거예요. 저는 항상 모든 걸 도전

으로 봐요. 그래서 한 가지 도전이 보이면 ‘좋아, 할 수 있어. 해보자.’라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5)

### 학업을 통한 자기 확장과 재구성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서의 학업을 단순한 학위 취득이나 경력 보완의 수단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정의하는 정체성 재구성의 과정으로 경험하였다. 이들은 학업을 통해 단절되었던 관심과 열망을 복원하였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였다. 또한 학업을 개인적 만족을 넘어서 전문성 확장의 전략으로서 자신의 전공을 자국의 정책, 여성 지원, 국제 협력, NGO 활동 등과 연결지으며, 학업 이후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미래를 그려보았다. 학업을 개인적 성취 뿐 아니라 공적 영향력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여긴 바탕에는 본국에서 젠더 관련 여성정책을 전공했던 경험, 젠더 이슈에 대한 관심도 작용하였다.

한편, 학업 과정은 도전과 성장의 경험으로도 다가왔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어로 진행되는 전공 수업을 들어야 하거나 제한된 전공 과목 개설, 높은 학업량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극복함으로써 더 큰 자신감을 얻었다. 다자녀를 둔 경우에도 학위 취득 의지를 잃지 않고 치열하게 이뤄낸 모습을 보여주었다. 즉, 이들이 학업을 자기 이해를 확장하고 미래의 삶을 재설정하기 위한 능동적 프로젝트로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업은 단순히 성취를 위한 수단을 넘어서 이들을 성장시키는 도전의 과정이자 정체성을 탐색하고 재정의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 전문성 확장의 전략

그때부터 이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구나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한 전공을 파는 거는 처음이기도 하고 기회도 크지 않은데. 이 분야에 이렇게 깊게 알게 되어 잘했다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2)

저는 우리나라의 무역산업부에 소속되어 있다가 왔는데, 개발학에서 젠더 관련 여성정책에 관한 공부를 하고 다양한 사례를 접하니 너무 흥미롭고 도움이 됩니다. 이 경험을 나중에 우리나라 정책에 적용하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3)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사실 제가 왔을 때 제가 선택한 전공이 경제학 같은 거라는 걸 몰랐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제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하는 일을 업그레이드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배운 교육과 연결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연구참여자 4)

### 젠더 관점 이슈에 대한 관심

젠더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 분야를 더 깊이 공부하기에 여대만큼 좋은 곳이 없잖아요. 전 (한국에서) 여대에 다니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여대 같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 좋겠다. 한번 가봐야겠다.’ 싶었어요. 제가 여대에 다니는 삶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연구참여자 5)

### 학업에 대한 도전과 성장

한국은 학업량이 꽤 많아서 학교 수업에 집중해야 하고, 과제에도 제때 집중해서 해야 해요. 학생들은 성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성적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성적을 받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연구참여자 4)

유일하게 어려운 점은 모든 게 한국어로 진행된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어를 겨우 1년 배웠는데 현실이 다가오니 정말 힘들었어요. 모든 수업이 한국어로 진행되기에 저는 이를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좋아, 한번 해보자. 한국어로만 진행되는 학과에서 내가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보자.’라고 생각했죠. (연구참여자 5)

둘째 가지면서도 영어 학원 다니고, 둘째 태어나고 나서 영어 성적 빨리 따려고 애들 데리고 필리핀까지 갔다 왔습니다. 애들 영어 시키고 저는 하루 10시간씩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중략) 진짜 하고 싶은 것은 학문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논문은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논문 자격 꼭 따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포기할 마음은 없었어요. (연구참여자 6)

### 외부자의 시선으로 본 한국 사회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사회를 단순히 ‘적응해야 할 환경’으로 경험하지 않았다. 오히려 외부자의 위치에서 한국 사회를 관찰하고 평가하며 비교하고 재해석하는 주체로 자신을

위치시켰다. 이들이 한국을 타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도, 그 경험을 위협이 아닌 해석의 대상으로 구성했음을 보여준다.

외부자의 시선으로 본 한국 사회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지닌 좋은 환경이었다. 낮은 범죄율, 발달된 인프라, 생활의 편리성을 갖춘 한국에서의 체류 경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모국의 상황과 한국 사회의 모습을 서로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들은 자신이 경계의 위치에 있음을 자각했다. 일부 참여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관심과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는 때로 환대와 긍정적 경험으로 다가왔지만, ‘다름’을 전제로 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경계인으로서의 경험을 자기 안에서 안정적으로 통합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관찰자의 입장에서 한국 사회의 젠더적 상황을 새롭게 경험하였음을 보고했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이 기대보다 더 가부장적이라고 느꼈고, 출산 및 돌봄 관련 제도와 사회적 기대를 모국과 비교하면서 한국 사회를 비판적으로 관찰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학업 이주 경험이 단순히 개인 내부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사회 구조와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를 동반함을 드러낸다. 연구참여자들은 외부자의 위치를 통해 한국 사회를 거리를 두고 관찰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이 머물 수 있는 조건을 재해석하였다.

### 안전한 환경과 새로운 경험

버스에서 제가 T-money 카드에 잔액이 없는 줄 뒤늦게 알고 기사님께 현금을 내려고 했는데 기사님이 목소리를 높여서 뭐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파파고로 해결했어요. 현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더라구요. (연구참여자 3)

아주 편리해요. 인프라가 좋고, 생활 수준도 좋고요. 또한,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고요. 범죄율도 매우 낮고 안전합니다. 휴대폰을 여기 두고 쉽게 외출했다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밤에도 걱정 없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4)

#### 경계인의 우호적 시선

개인적으로 차별을 본 적이 없고, 어떤 형태의 차별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낯선 사람들과 많이 대화하지 않고, 사교 모임이나 교회에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들은 그냥 좋은 사람들이에요. 차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연구참여자 4)

저는 어떤 형태의 차별도 본 적이 없어요. 캠퍼스 밖에서의 경험도 좋았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나쁜 짓을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그런 상황에 익숙해져서 그런가 봐요. 중국에서 유학생으로 지냈을 때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밖에 나가지만 해도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5)

외국인 학생 프로그램에 두 명의 도우미가 있는데 정말 친절하세요. 의료보험과

환급, 병원 안내도 다 해주셨고. 저희 담당 교수님은 지갑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응급 연락처 목록까지 주셨는데 교수님 전화번호 호까지 기재되어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3)

####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알아차림

한국은 더 가부장적인 느낌이에요. 여기서는 여전히 남성 중심 사회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여성에게 더 나쁘게 대하는 건 아닐까 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한국이 오히려 더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여성들이 아이를 갖고 싶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보다 말이죠. (연구참여자 5)

근데 뭐 남편 부모님이 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니까 해 드려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시부모님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나쁜지 좋은지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세대 차예요. (연구참여자 6)

#### 맥락속에서의 선택적 정주

연구참여자들에게 한국에서의 정주는 확정된 결론이 아니라 관계적, 제도적, 가치적 맥락 속에서 유연하게 조정되는 과정으로 경험되었다. 이들은 한국에 남을 것인가, 귀국할 것인가를 이분법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삶의 과정 중에 열려 있는 하나의 선택지로 유지하였고, 정주는 계속 협상되고 재검토되는 가능성의 영역이었다.

우선, 연구참여자들은 개인적 욕구만이 아니라 가족 관계, 장학금 조건, 직업 경로, 사

회적 지지 등을 긴밀하게 탐색하여 한국 사회에서의 정주 여부를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가족이 먼저 한국에 와 있었던 경우, 한국으로의 학업 이주를 심리적으로 안정된 선택이라 여기게 되었다. 반대로 장학금 제도의 귀국 의무에 따라 정주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제한된 경우도 있었다. 이는 정주가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이라기보다 제도적 조건과 관계적 맥락 속에서 형성됨을 보여주었고,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논지와도 연결점이 있다(박웅신, 2025).

한편,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사회를 단지 학업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가치 지향과 연결된 장소로 경험했다. 이들에게 학문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정주 고려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학자로서의 연구나 가르침에 감시와 통제가 존재하는 모국의 교육 환경과 비교하면서 한국을 학문 활동의 독립성과 자존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때 정주는 편의성이나 경제적 조건만이 아니라,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하는 환경을 선택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정주 여부를 유연하고도 선택적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고국에서 여성을 위한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는 소망이나 다문화, 이민 관련 연구자로서 학자로서의 길을 가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주에의 고려는 제도, 관계, 가치가 복합적으로 얽히는 유연한 협상의 과정이라 해석하였다.

### 유연한 정주 고려

한국에서의 경험은 처음에 기대감이 없어서 그런 건지 지금 만족해요. 그리고 공부 끝난 후에도 원래는 빨리 돌아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여기 있든 가든 크게 상관이 없어요. (연구참여자 2)

한국 생활은 이제 좀 안정된 것 같아요. 애들도 여기서 학교 다니고. 근데 마음은 좀 불편해요. 내가 외국인이다 하는 그런 시선들 때문에. 그래서 제3의 나라로 가보자. 말레이시아나. 왜냐하면 말레이시아에는 성공한 중국 화교들이 많잖아요. 친구들에게 듣다 보니 거길 가면 중국어로 대화해도 대우받을 것 같고 물가도 저렴하고. (연구참여자 1)

### 학문의 독립성에 따른 선택

좀 아직 만족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학자의 자유로운 환경, 말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이 제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한국에 들어오니까 왜 들어왔냐고. 저는 그냥 자존심 있게 살려고 왔다고 했죠. (연구참여자 6)

### 목표에 따른 선택

항상 여러 장소에 머무는 다양성을 추구하지만, 결국에는 제 나라로 돌아갈 거예요. 사실 제 계획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는 거예요. 여성들, 특히 젊은 여성들을 돕는 단체를 만들고 싶어요. (중략) 그래서 저는 비정부기구

(NGO)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싶었어요. 단 순히 배우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영향을 미 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구참여자 5)

인구, 다문화, 이민과 관련 있는 연구는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려고. 그러 니까 학자로서 가려고. 어려운 거 알고. 인 정받는 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다. (연구 참여자 6)

#### 미묘한 차별과 교차적 위치성의 경험

연구참여자들은 직접적인 차별이나 노골적 인 배제를 경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상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이 ‘다른 위치’에 놓이게 되었음을 인식하곤 하였다. 이 러한 경험들은 단일한 범주에서 드러나기 보 다는 주로 국적, 젠더, 모성, 학력, 체류 신분 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드러난 것으로 관찰 되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학업 공간과 일상 공간에서의 위치가 서로 다르게 경험되었다는 점 이다. 연구참여자들은 학업적 맥락에서는 ‘선 발된 인재’이자 ‘우수한 박사과정 학생’으로 인정받았지만, 양육 등 일상적 맥락에서는 ‘외 국인 엄마’로 환원되어 미묘하게 불편했던 경 험을 이야기하였다. 즉, 자신의 학력이나 전문 성이 삶의 모든 맥락에서 동일하게 작동하지 않았음을 인지하였다. 학업의 공간에서 강화되었던 전문가 정체성과 유능감이 돌봄의 공 간에서 새롭게 위치되었고, 대신 국적이나 모 성의 조건이 전면에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외국인 학생으 로서 자신의 유능함을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느꼈음을 보고하였다. 박사학위 과정에서 요 구되는 기준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적 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느꼈고, 이를 차별과 배려의 경계에 놓인 양가적 경험으로 인식하 였다. 이를 차별로 느끼면서도 한국에서 학자 로 인정받도록 하려는 교수의 선의라 받아들 이며 감사함을 표하기도 하는 등 이러한 상황 을 자기 책임화하기도 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유학생 집단 내부에 서도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아차리게 되 었다. 이미 네트워크가 잘 형성된 특정 국적 의 유학생들은 유학생들 가운데서는 중심부에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 등 소수 출신의 학생 은 때로는 과도한 환대나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교차적 위치성은 단순히 ‘유학생’이라는 범주로 환원되지 않고 복합적 인 위계와 맥락 속에서 경험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들의 경험이 단순한 성공 서사나 적 응의 문제가 아니라 교차하는 정체성 속에서 끊임없이 위치를 조정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차별은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미묘하게 존 재하며, 때로는 배려로, 때로는 개인의 노력 문제로 해석되면서 구조적 불균형이 가시화되 지 않는 채 남는다.

#### 외국인 엄마로서의 경험

어린이집 다닐 때도 보면 좀 문화가 다 르잖아요. 한국은 좀 옷을 얇게 입는 것 같은데 저는 두껍게 입고 왔다 갔다 하 는 거리가 있으니까. 그때 선생님이 저를 좀 다르게 보는 느낌이 있었어요. 외국인 엄마라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애한테 한국 애들 은 그렇게 옷 안 입는다고 이야기했다고.

(연구참여자 1)

사소한 부분이 있어요. 좀 웃겼지만. 예를 들면 학교에서 컴퓨터가 고장 났다면 선생님이 웃으면서 아 이거 중국산인가 보다 이런. 약간 우리가 예민하게 바라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런 걸 인식을 못하죠. 일반 사람의 인식은. 사실 학교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문제죠. (연구참여자 6)

### 외국인 학생으로서의 능력 증명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 경우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해요. 정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교수님이 알아주거든요. (연구참여자 3)

첫 시험 볼 때 정말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었죠. 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제 선택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익숙해지니까 그냥 제 일에 집중하는 긍정적인 면을 보기 시작했어요. 살아남았잖아요. 마지막 학기에요. (연구참여자 5)

교수님 입장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를 진짜 학자로 키울 수 있다, 너는 한국 내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의 교수의 기준으로 키워야 된다고 해요. 한국에서 살면서 높은 지식인 학자로 인정받으려면 솔직히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이 한국인보다 기준이 높아서요. (연구참여자 6)

### 소수자로서의 이중적 경험

세계 각지에서 온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중국인 학생들을 국제학생으로조차 간주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미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다른 국제학생들이 겪는 것과 같은 종류의 문제를 겪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구참여자 5)

### 논 의

본 연구는 제한 고학력 외국인 여성의 학업 이주 경험을 해석현상학적 분석을 통해 탐색하였다. 그 결과, 연구참여자들의 학업 이주 경험은 ‘성취와 선택으로서의 이동’, ‘학업을 통한 자기 확장과 재구성’, ‘외부자의 시선으로 본 한국 사회’, ‘맥락 속에서의 선택적 정주’, ‘교차적 위치성과 차별의 경험’이라는 다섯 개의 상위주제로 드러났다. 도출된 상위주제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 학업 이주 경험에서 상호 연결되어 나타났다. 학업을 통한 자기 확장의 경험은 정주 여부에 대한 고민과 연결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교차적 위치성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는 참여자들의 이주 경험을 적응과 취약성의 틀로 분석하기보다는 선택과 교차성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학업 이주 경험에 대해 삶의 방향을 자발적이고 전략적으로 재설정할 선택의 결과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기존 유학생 연구가 적응과 어려움 중심으로 축적되어 온 흐름(이선미, 김영순, 2021)과 구별되

는 지점이다. 자국의 안정된 직장을 떠나 한국에 온 결정이나 한국 유학 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해 치러야 했던 치열한 과정을 자신의 성취를 증명한 경험으로 설명하였다. 일부는 고국 밖에서의 삶에 대한 호기심을 ‘도전’과 ‘흥분’으로 표현하면서,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고 싶은 진취적 욕구가 학업 이주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여성들의 학업 이주가 단지 교육 기회 확보의 문제를 넘어, 자신의 세계를 확장하기 위해 도전하는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을 반영한다. 또한 젠더 관점에 대한 학문적 지향, 여성 학업 공동체에 관한 관심 등이 학업 이주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했다는 이야기는 이주여성들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재현해 온 기존 담론과 달리, 삶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주체로 이들을 이해할 필요성을 강화한다. 이는 고학력 이주여성의 상호문화적 실천을 강조한 연구(김진희, 2025)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도 이동의 의미 구조 자체를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학업 이주의 경험을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체험하였다. 이는 베트남 유학생의 성공 경험을 의미 구성 과정으로 해석한 연구(윤효승, 2025)와 유사한 맥락을 보인다. 그러나 학업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학업 이주의 경험이 어떻게 자기 이해와 정체성 형성을 위한 사건이 되는가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확장된 의미를 지니며, 글로벌 교육 이주의 새로운 양상과도 연계점을 지닌다(구기연, 2024). 또한 일부 참여자는 본국에서 이미 석사 학위와 정책 실무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한국으로의 추가 학업 이주를 선택하였는데, 이를 통해 자국의 여성 지원 정책 설립이나 NGO 활동으로 연결하고

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학업이 개인적 성취를 넘어 공적 영향력과 전문성 확장의 전략으로 의미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기존 연구(김진희, 2025; 조효진, 김민정, 2024)와 같은 맥락에서 학업 이주의 동기 및 결정이 합리성의 결과만이 아니라, 정체성 형성과 가치 지향이 결합된 실존적 선택임을 보여준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외부자의 시선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는 주체가 되었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안전함과 편리한 인프라를 긍정적으로 지각했으나, 동시에 남성 중심적이고 보수적인 문화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고수하였다. 외부자의 시선으로 우리 사회를 관찰하고자 한 부분은, 학업을 위한 이주 이후에도 자신이 소수자의 위치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며 거리 두기를 통해 한국 사회를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 전환의 증거로도 여겨진다(김진희, 2025). 나아가 외국인 유학생들을 문화 적응의 대상으로 보는 접근을 넘어, 우리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위자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최희정, 2022).

넷째,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정주 여부를 확정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유연한 협상의 과정으로 접근하였고 이러한 협상이 학업 과정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부는 귀국이 요구되는 장학금 제도의 조건을 언급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정주가 개인 의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냈고, 한국 사회의 학문적 자유와 같은 가치 지향을 정주 고려의 기준으로 설명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정주’와 ‘계속 이주’의 사이에서 딜레마를 경험한 고학력 이주 여성 유학생 연구와 맥락을 함께하는 부분이 있으며(구기연, 2024), 유학생

이 한국 사회 정주를 고려하는 결정 과정이 제도적 조건과 개인의 가치, 정체성, 삶의 질 판단이 중층적으로 결합된 과정임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동시에 모성, 돌봄, 노동 조건은 학업 이주의 경험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였는데, 돌봄 자원의 확보, 가족 문화와의 긴장 등은 젠더와 이주 지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고학력 여성이라 하더라도 젠더화된 우리 사회의 돌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동시에(김은하 외, 2008; 신수정, 2023), 정주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구조적 조건 속에 놓여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섯째, 연구참여자들은 노골적 차별이 아닌 일상적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이 '다른 위치'에 놓여 있음을 인식하는 순간을 경험하였다. 특히 외국인 여성, 어머니, 고학력자라는 정체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위치성이 재구성되는 경험이 확인된다. 교차성 이론(Crenshaw, 1989, 1991; Collins, 2000)에 따르면 개인의 경험은 단일 범주로 설명될 수 없으며, 복수의 사회적 위치가 교차하면서 권력관계가 형성된다. 교차성에 대한 초기 연구는 젠더, 인종, 계급 등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이 다차원적 맥락 속에서 얽혀 있으며, 이러한 교차 지점에서 억압과 지배, 차별이 어떻게 중층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Crenshaw, 1989; Collins, 2000). 이후 교차성 논의는 특정 정체성 범주를 고정된 것으로 이해하기보다, 서로 다른 사회적 위치가 맥락에 따라 상호작용하며 개인의 경험과 권력관계를 구성하는 과정에 주목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Collins & Bilge, 2016). 이러한 관점은 개인의 정체성을 단일하고 배타적인 범주로 파

악하기보다, 상황과 관계 속에서 유연하게 재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본 연구 역시 이러한 관점과 맥락을 같이하여 기존의 다문화 여성에 대한 시각을 넓혀 이들이 교차 지점에서 보여주는 경험과 인식을 새롭게 바라보고자 하였다. 개인의 정체성을 배타적인 것으로 보기보다, 유연한 정체성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고학력 외국인 여성의 학업 이주 경험을 단일한 '외국인 여성 유학생' 범주로 환원하기보다, 젠더, 국적, 학력, 모성, 체류 지위 등이 교차하는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경험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학업 공간에서는 '우수한 학생' 혹은 '선발된 장학생'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놓이기도 했지만, 일상적 관계나 양육 맥락에서는 '외국인 엄마' 혹은 '외부자'로 재위치되는 경험을 보고하였다. 개인의 학력 자본이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르게 작동함을 시사하며, 이는 개인의 능력이나 특성만으로 설명되기보다 맥락에 따라 어떤 정체성이 전면화되는가에 따라 권력관계가 재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구조적 불균형을 명시적 차별로 받아들이기보다 개인의 노력 문제로 전환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미묘한 차별(microaggression)의 특성 과도 연결된다(Sue et al., 2007). 여기에 더해, 미묘한 차별이 노골적 배제라기보다 일상적 상호작용과 제도 운영의 방식 속에서 재생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Sue et al., 2007). 또한 외국인 유학생 집단 내부에서도 출신 지역, 네트워크의 규모 등에 따라 경험이 상이하게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여 '이중 소수자'로서 관심과 환대, 소외감이 동시에 발생하는 양가적 경험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의 다문화 양상의 변화에 주목하여, 자발적이고 전략적으로 학업 이주를 선택한 외국인 고학력 여성의 학업 이주 경험에 초점을 두었다. 고학력 외국인 여성의 학업 이주를 적응 담론이 아닌 정체성 재구성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교차성 관점을 통해 학업 이주를 문화, 젠더, 정체성, 노동 등이 결합된 복합적 경험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Collins & Bilge, 2016). 또한 외국인 여성들이 경험했던 미묘한 차별은 공개적 배제가 아닌 일상적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Sue et al., 2007). 즉, 고학력 외국인 여성의 학업 이주 경험을 교차적 위치성이 맥락 속에서 재구성되는 경험적 사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교차성 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한 의의가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단순한 학업 적응의 문제를 넘어, 전문성 확장, 경력 전략, 정주 가능성, 젠더 역할과 돌봄 문제 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경험을 보고하였고, 일부는 학업 이후의 진로를 본국의 정책 활동, NGO 활동, 연구자 경로 등과 연결 지으며 학업 이주를 개인의 경력 전략이자 사회적 기여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학력 외국인 여성 유학생을 단순한 교육 수혜자가 아니라 전문성과 잠재적 사회 기여를 지닌 인적 자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유학생 정책에서도 언어 및 학업 적응 지원에 머무르기보다 경력 개발 지원, 연구 및 전문 네트워크 형성, 가족 및 돌봄 환경에 대한 제도적 지원 등 보다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교육기관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고민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국가 간

학업을 위한 이동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제 학생의 네트워크 확대와 참여 보장, 양육 동반 유학생을 위한 자원 연계, 젠더 및 상호문화 감수성 강화를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차원에서는 유학생에 대한 지원을 단순 행정 지원 수준에서 진로 개발 지원, 연구 및 전문 네트워크 참여 확대 등 통합적 지원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소수의 사례를 중심으로 수행된 해석현상학적 연구로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자기 보고에 기반한 해석이라는 점에서 경험의 다른 측면이 충분히 탐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구자의 해석이 분석 과정에 필연적으로 개입된다는 점에서 경험의 의미 구성이 연구자와 참여자의 상호해석적 만남 속에서 형성된 결과라는 한계를 지닌다. 이는 해석현상학적 연구의 인식론적 특성이기도 하나(이광석, 2013) 동시에 연구자에 따라 상의한 의미가 도출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참여자 모두가 현재 한국에서 학업을 수행 중이거나 최근 학위를 받은 경우로, 장기 정주 이후의 경험이나 이후 선택에 따른 삶의 재구성 과정까지 포함하지는 못한 부분도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적과 체류 지위를 포함한 비교 연구, 가족 구성 형태별 차이 분석, 학문 분야별 경험 차이를 탐색하는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제도적·정책적 환경 분석을 결합한 다층적 접근을 통해 학업 이주 이후의 진로 선택과 정주 협상 과정을 구조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외국인 여성의 체류, 취업, 가족 관련 정책 개선과 연계함으로써 연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구기연 (2024). '정주'와 '계속 이주' 사이에서의 딜레마: 한국의 이란 여성 유학생들의 문화적 적응과 초국가적 이동성의 전략. *공간과사회*, 34(3), 34-75.
- 김상찬, 김유정 (20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법학연구*, 43, 319-344.
- 김진희 (2025). 몽골 출신 고학력 이주여성의 상호문화 실천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다문화와 교육*, 10(2), 21-46.
- 김연수, 김은영, 혜민, 박경은, 신나영, 신흥임, 이지영, 조윤진, 한영주, 홍상희 (2025). *여성심리학: 젠더와 다양성을 향하여*. 서울: 학지사.
- 김윤희 (2025).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요소 탐색. *문화기술의 융합*, 11(6), 13-20.
- 김은하, 임연옥, 박정숙, 김남영 (2008). 기혼 여자 대학원생의 다중역할 수행 경험과정. *성인간호학회지*, 20(1), 113-125.
- 민숙원, 심은비 (2021). 산업계 인사담당자의 인식을 통해 본 고학력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노동시장 고용가능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연구논총*, 42(4), 113-143.
- 박용신 (2025).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주 여건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법학연구*, 77, 315-350.
- 법무부 (2025). *체류외국인 출입국통계*.
- 송미경, 지승희, 조은경, 임영선 (2008). 다문화 가정 외국인 모의 부모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97-517.
- 신수정 (2023).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령기 자녀를 둔 여성 중간관리자의 온라인 재택근무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8(1), 139-161.
- 신혜정, 노충래, 허성희, 김정화 (2015).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7(3), 5-29.
- 안기, 제혜금, 소혜진 (2021). 중국 기혼여성 유학생의 박사과정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학업과 장거리 양육경험에 관하여.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7, 51-73.
- 윤인진 (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한국사회학*, 42(2), 72-103.
- 윤희승 (2025). 베트남 유학생의 성공적인 유학 생활에 관한 해석현상학적 분석. *교양교육실천연구*, 9(1), 173-194.
- 원종숙, 김성길 (2020). 중국인 이주여성이 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배움에 관한 질적 연구. *미래교육연구*, 10(2), 53-74.
- 이광석 (2013). 해석현상학적 분석의 의의와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질적연구*, 14(2), 132-144.
- 이선미, 김영순 (2021).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동향 분석. *현대사회와 다문화*, 11(1), 25-60.
- 조명옥, 양진향 (2023). *질적자료 분석의 이해와 실천*. 서울: 현문사.
- 조숙정, 오정은 (2022). 초연결사회에 대응하는 외국인 유학생 활용전략 연구: 과학기술 분야 석박사과정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18(2), 259-287.
- 조효진, 김민정 (2024).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동기 및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교육과 학연구*, 55(1), 83-103.
- 최운선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 적응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6(1), 141-181.
- 최희정 (2022). 이동과 정착 사이, 유학생들의 졸업 후 삶: 한국 기업에 취업한 이공계 유학생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2(2), 1-28.
- Crenshaw, K. (1989). Demarginalizing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sex: A Black feminist critique of antidiscrimination doctrine, feminist theory and antiracist politics.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1989(1), 139-167.
- Crenshaw, K. (1991). Mapping the margins: Intersectionality, identity politics, and violence against women of color. *Stanford Law Review*, 43(6), 1241-1299.
- Collins, P. H. (2000). *Black feminist thought: Knowledge, consciousness, and the politics of empowerment* (2nd ed.). Routledge.
- Collins, P. H. & Bilge, S. (2016). *Intersectionality*. Polity Press.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SAGE.
- Smith, J. A., Flowers, P., & Larkin, M. (2025). *해석현상학적 분석 (2판)* (이광석, 유상현, 이은하 역). 서울: 한국가이던스.
- Sue, D. W., Capodilupo, C. M., Torino, G. C., Bucceri, J. M., Holder, A. M. B., Nadal, K. L., & Esquilin, M. (2007). Racial microaggressions in everyday life: Implications for clinical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62(4), 271-286.
- 1차원고접수 : 2026. 02. 25.  
심사통과접수 : 2026. 03. 17.  
최종원고접수 : 2026. 03. 30.

## In the Context of Choice and Intersectionality: An IPA Study on Academic Migration Experiences of Highly Educated Foreign Women in Korea

Sujeong Shin

Yonsei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Sangsuk Kim

Ewha Womens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This study explored the academic migration experiences of highly educated foreign women in Korea using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IPA) in order to understand the meanings and essences of migration for stud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ix highly educated foreign women from Kenya, Ghana, the Philippines, and China. Through IPA, five superordinate themes and fifteen subthemes were identified. The superordinate themes were: ‘Movement as Achievement and Choice,’ ‘Self-Reconstruction through Academic Pursuit,’ ‘Korean Society through the Eyes of an Outsider,’ ‘Selective Settlement within Context,’ and ‘Experiences of Intersectional Positioning and Discrimination.’ The findings move beyond adaptation- or vulnerability-centered perspectives by interpreting academic migration within the contexts of choice and intersectionality. The study suggests the need to understand foreign women not as a homogeneous vulnerable group but as active agents with diverse and complex positionalities, and contributes to discussions on creating more inclusive and sustainable environments for international students.

*Key words* : *highly educated foreign women, academic migration,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IPA), intersectionality, agency*